

서론

명칭: '엑소도스(*Exodus*)'는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번역한 학자들이 붙여준 것으로, '탈출', '벗어남' 또는 '죽음'을 의미한다.

저자: 모세 (요 7:19, 5:46-47, 눅 24:44, 출 17:14, 24:4)

저작연대: 주전 15세기 후반

목적: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계속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나라를 조직하셨나를 보여주신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 타락한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그 종교의식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율법의 수여과정 등을 보여주고 있다.

주 내용: 종보자 모세의 임명과 사역, 제사장의 유래,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옛 언약 관계가 어떻게 새로운 통치 하(즉, 시내산 언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 종속되었음 (1:1-12:36)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심 (1:1-4:31)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심 (5:1-7:13)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모세의 권위를 입증하심 (7:14-12:36)

이스라엘의 시내산까지의 여행 - 노예해방 (12:37-18:27)

애굽에서 나옴 (12:37-51)

초태생의 봉헌규례 (13:1-16)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13:17-22)

홍해를 육지같이 건넘 (14:1-22)

애굽 군대의 추격과 침몰 (14:23-31)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15:1-21)

백성들의 불평 (15:22-17:7)

아말렉을 물리침 (17:8-16)

책임의 분담 (18:1-27)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 계시 (19:1-40:38)

율법을 주심 (19:1-24:18)

성막의 제도 (25:1-31:18)

율법을 어김 (32:1-34:35)

성막의 건조 (35:1-40:38)

역사적 배경

히소스왕조: 애굽의 13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지배함

Afimose: 제 18왕조 창건, 히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영토 회복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Amenhotep I: 영토를 더욱 넓혀 150년간 번영의 기틀을 다짐

Thutmose I: 국경을 더욱 넓힘, 북쪽은 시리아까지

Thutmose II: 모세를 기른 공주의 남편으로 일찍 죽음

Hatshepsut: *Thutmose I*의 정식 부인의 딸이며 둘째 부인의 아들인 *Thutmose II*의 이복누이로 아내가 됨, *Thutmose III*의 섭정이 되어 20년간 권력을 누림

Thutmose III: *Thutmose II* 후궁의 아들임으로 *Hatshepsut*는 계모이자 백모인 셈, 모세와 같은 연령. *Hatshepsut*가 죽은 후에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건설한 강력한 왕이 됨. 모세가 망명함

Amenhotep II: 훗날 모세와 대결한 왕

출애굽기 1 장

1.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가장 쉽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하나만 찾아보자. (무슨 순서로 기록되었을까?)

막내가 베냐민인데 끝에 있지 않다. (어머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2. 야곱은 장자(맏이)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챘다. 복을 빼앗긴 에서의 후손이 세일 산에서 번성하고 있을 때(창36장) 축복 받은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15:5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1)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2)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3)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3. 어느 날 갑자기 대군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약 200만 명) 사람이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

요셉

4. 출애굽을 해산에 비교해 봅시다.

아기가 엄마 배속이 좋다고 나오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배속이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고통이 찾아오고 아기는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지요. 동시에 엄마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진통 혹은 産痛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는 과정도 이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일종의 권력 투쟁의 승리) - 좋은 세월이 다 지나가고 고통의 시절이 찾아와 신음하며 아파하지만 그것은 곧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産痛입니다.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한 채 죽은 사람도 많겠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의무만 우리에게 있을 뿐,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5. 두려워한다는 것은 용기 없는 짓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 불에 대한 두려움, 가스 폭발에 대한 두려움.....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6.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난 것

7. 창 50:24, 창 15:13-16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 (두 문제를 요약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난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일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조차, 어쩌면 사람의 계획에 의한 일조차 크게 보면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8. 이스라엘이 노예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히소스 족이란 이방인 족이 애굽(함 족)을 150년간 강력하게 통치했다. 히소스 족은 그들 자신에 관한 기록이나 문학작품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 놓았지만 애굽인들이 깨끗이 없애버렸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 왔으며, 애굽 왕조에 의해 추방되었을 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성경을 사료로 취급하지 않는 일반 역사학자들은 히소스 족이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 계통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만약 히소스 족이라고 불린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여러 면에서 수수께끼가 풀려진다.

1) 왜 애굽에 들어온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야곱의 한 가족이 들어왔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굉장한 사건은 아니다.

2) 어떻게 막강한 애굽의 권력을 차지했을까?

요셉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점진적으로 권력을 차지했을 것 (결국 어떻게 점령을 당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3) 어디로 사라졌을까?

가나안으로. 일단은 노예의 처지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침공해 간 기록은 많이 있다.

4)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 인데 히소스 족이 지배한 기간은 150년이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까?

430년 중에 처음에 요셉과 우호적인 왕들의 시기를 빼고 새 왕이 등장해서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약 130년)도 빼면 150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같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도 철저히 시행되지 않은 것 같다. 증거를 두 가지 든다면? (한 가지는 본문에서 알 수 없으니 평소 실력으로)

1) 모세가 살아난 점

2) 출애굽 때에 어린아이가 많았다는 점 (모세보다 어린 사람이 많았다는 점)

9. (재미로) 1장을 보면서 남학생에게 한 마디 한다면?

불쌍하다. 때를 잘 만나서 사는 줄 알아라. 보낼 수 있었는데. 이 자식이 그 때 태어났어야 하는 건데

출애굽기 2 장

1. 모세의 어머니는 무슨 지파이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떤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었나요?
레위, 아직 지파로서의 임무는 없음
2. 모세의 어머니는 남보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 위대한 인물을 낳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또 다른 복이 있다면?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샅을 받음
3.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는데 그에게 알맞은 이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바로의 딸
4. 영화 십계를 성경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영화에 보면 모세의 신분이 히브리 족이라는 것이 판로 나면서 왕자의 자리가 문제가 된 것 같으나 모세는 이미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몇 절에 나타나 있는가?
2:11
5. 일국의 왕자가 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망명을 가야할 만큼 큰 죄는 결코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봐도 짜증이 날 정도로 못하겠다고 버티는 태도를 보면 모세가 무언가 일을 저질렀다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 모세가 망명을 가야만 했는지 가정을 시도해 보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6. 1, 2장에서 이름이 같은 사람(동명이인)이 있을까?
없다. (십브라, 십보라)
7.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 아들을 낳자 붙인 이름은 므낫세였다. 고향의 모든 일들과 그 동안의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린다는 뜻이었다. 다시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 한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창성케 할 것이라는 의미였다(창 41:51-52). 그런데 모세가 아들을 낳고 붙인 이름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두 사람이 출애굽에서 맡은 역할이 대조적인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요셉은 당장 애굽을 떠날 사람이 아니다.
모세는 미디안을 떠날 사람이다.
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듣고서야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계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창 15:13-14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애굽에서 지낼 기간까지 명시했었다.
9.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자.
어머니를 통한 교육 → 궁중에서의 교육 → 광야에서의 교육 → 일꾼으로 부름
행 7:22를 보면 모세가 왜 궁중에서 자라야 했는가를 알 수 있다.
10. 하나님은 동작이 참으로 느리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소리를 낸지 얼마만에 들게 되셨는가? (행 7:20-30)
최소 80년
- 2) 동작이 느리다고 하면 불경죄에 걸릴 테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출애굽기 3 장

1.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다 찾아보자.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하나만 붙여보자. 가령, 좋으신 하나님처럼.

본문에 있는 표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의 표현: 나타나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말이 많으신) 하나님

2.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때 한 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로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증거를 하나 고르시오. 이유는 무엇인가?

3. 아이가 아빠보고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임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결혼사진, 출생사진, 출생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증명이 될까? 아버지가 이런 것을 제시하면 우스울 것이다. 나 같으면 웃고 말겠다. 굳이 한 마디 한다면 커봐라 알게 될 거다. 밑줄 친 이 말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4.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를 본문의 표현을 이용하여 말해 보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자와 피조물

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지목하고 계셨을지라도 그는 40년간이나 양을 치고 있었다. 호렙산에 오른 것도 하나님을 뵈기 위한 것이 아니라, _____ 하러 간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가 떨어졌다.

불구경 (출애굽이 모세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증거)

6. 일반적인 작전명령은 '○월 ○일 △△시까지 ◇◇고지를 탈환하라'는 식이다. 군대의 작전명령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거의 다 그런 식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위의 작전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3:8-10)처럼 바꾸어 보자.

이끼게 해줄 테니 ○월 ○일 △△시까지 ◇◇고지에 올라가라

하라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더 많다. 모세의 할 일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게 나타나 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크리스찬의 싸움은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7.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길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모세의 말은 너무나 짧다. 간략하게 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바로가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은혜를 입도록 하겠다.

내가 누구데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 쉽겠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말씀은 분량도 많지만 내용이 중요한 반면에 모세의 말은 그저 간단한 질문뿐이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의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지라는 증거)

8. '네 조상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같은 내용이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표현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어떤 관계일까?

같은 내용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자음만 따서 *YHWH*라고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모음을 추정하여 여호와라고 읽다가 지금은 '야웨'일 것이라고 추정함

9. 하나님께서 모세를 유혹하듯이 불렀다. 모세가 다가오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다. 왜? 신발을 벗고 오라고 이것은 답이 아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란 말이다.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결이 필수적인 절차다. 신발을 벗는 일은 경외와 존경의 표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성경적이다?)

10.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표현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시간 밖에 거하는 존재를 설명)

11. 위인들이나 영웅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나설 때 남긴 말이나, 혹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전투를 하러 나갈 때 보여준 모습과 비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핑계와 하나님의 대답이나 반응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대화 중 '버티어 보아도 어쩔 수 없겠구나. 에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던 때는 몇 번 대화?

3번

1) 모세 : 내가 누구관대 (3:11)

하나님 :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2) 모세 : (당신은 누구시기에) 3:13

하나님 :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3) 모세 :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4:1)

하나님 : 지팡이를 뱀으로, 문둥병을 치료하는 능력, 강물이 피가 됨

4) 모세 : 말에 능치 못하다.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4:10)

하나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그렇게 만든 자가 내가 아니냐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5) 모세 :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4:13)

하나님 : 노를 발하사 전면에 나서는 일은 아론이 한다. (하, 그 놈 되게 꿈지락거리네. 그래도 못 가겠단 말이지. 이놈의 자식이!)

12. 하나님의 명령이 좀 특이하다는 것은 위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끝에 보면 또 다른 특이점이 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인마다 은, 금 패물과 의복으로 자녀를 꾸미란다. 나중에 소용이 있는 것이지만 굳이 출애굽 때 그래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면 신 15:12-18을 읽어보자.

애굽을 위해서 고생한 대가

출애굽기 4 장

1. 한 때는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였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했던 모세가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완전히 패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신감과 교만을 다 버림.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2.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도 보여주고 확신도 주는데 한사코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는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체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실제적인 힘이 약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의 믿음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간다.

3.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장인에게 한 말은? 왜 그랬을까?

형제들을 보려하니 보내 달라. 내 동족을 구해내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하기에는 쑥스러웠을지 모르겠다.

4. 동, 서양을 막론하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는 출현할 때부터 뭔가 남다른 점이 있다. (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찾아보자.

1.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쫓겨나서 순종

2. 장인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아니함

3. 가정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함

4.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고 준비하심

5. 혼자할 일을 형과 함께함

5. 화를 내면서 모세를 쫓아낸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쓰러워서 추가로 위로하거나 도와주신 일은?

1. 네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고 알려주심

2. 먼저 가서 아론을 불러다 주심

6.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말을 들은 것은 그들이 행하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명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대체로 아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면 된다. (지금도 과거에도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많은 이적이 따름)

7. 출3, 4에 제목을 붙이시오.

모세의 소명(1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2점)

8. 모세는 뜨거운 민족애나 불타는 신앙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 (마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9.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원할 때 일어날 확률이 작은 기적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줄 때 비상식적인 경우가 더 확신을 주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 중에서 그런 예를 찾아보시오.

뱀의 꼬리를 잡은 경우 (꼬리를 잡으면 물릴 가능성이 크다)

10.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함께 자란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22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만났어요. 그 친구 덕분에 잊어버렸던 옛일을 되새기면서 즐거웠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최 XX라는 친구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 후 술집에서 노래 반주하면서 지냈는데 얼마 전에 어디로 잡혀가서 많이 맞고 정신이 약간 이상한 상태가 되었다고 그러더군요. 아주 옛날에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해서 나하고 몹시 싸우다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에 “너 그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대충 싸우다가 말았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늘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답을 여러분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찾아보세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1.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는 무엇을 손에 잡았는가?

지팡이 (1점), 하나님의 지팡이 (2점)

1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놓고 느닷없이 죽이려 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만큼 중요한 실수를 모세가 했다는 의미일 텐데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과 관

런이 있는 실수였을까?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월간 고신 93년 9월, 10월호를 참조할 것)
할례 (아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1) 예비 유월절

2) 십보라가 모세의 의견에 동의치 않은 그 무엇 (아들의 할례)

13. (월간고신 93년 9월, 10월호 참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사건은 나중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의 예표이기도 하다. 어떤 점이 닮았는가?

피 흘림으로 죽음을 면한 점에서

출애굽기 5 장

1. 바로曰: “들어주고 싶어도 기분이 나빠 그 부탁은 못 들어 주겠다.” 바로가 듣기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은?

내 백성을 보내라(1절) (그게 어째 니 백성이고?)

2. 자, 드디어 모세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제대로 못하고 죽을 쑤고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과 모세의 말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에야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실까 두렵다고 말함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키심)

3.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의 대답은 옳은 말이다. 바로의 생각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1) 여호와가 누군데? 2) 요것들이 피병을 부려?

4.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예가 본문에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패장들의 말

5.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마주치게 되면 일단 누가 피해를 본다? (가령, 여러분과 학교선생님)

하나님의 백성, (발뒤꿈치와 머리를 기억합시다.)

6. 5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분류해 보자.

1) 하나님이 누군데? 2)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3)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가? NOBODY

7.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4장 끝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고 했다. 막상 고난이 닥치자 어떻게 돌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어떤 비유가 생각나는가?

‘하나님께서 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은 아무 고통도 없는 쉬운 길이 아니다. 어른이 되는 길은 아픔 속에 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

8. 목숨을 건 패장들의 권의에 대한 반응을 본 모세의 참담함을 설명해 보시오. 하나님께 무엇이 라고 항의를 했을까?

그저 보세요 내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1908년 카일(Kyle) 교수란 분이 비돔성의 고적을 자세히 조사했는데, “그 성의 아랫부분은 짚을 섞어 구운 벽돌로 건축되었고, 가운데 부분들은 곡초의 그루터기를 섞어 구운 것으로 건축되었고, 윗부분들은 아무 것도 섞지 않고 흙으로만 구운 벽돌로 건축되었다.” 고 했다.

출애굽기 6 장

1.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도울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3장 8번 참고)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 (그것마저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근거한 것이다)

2.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확신이 담긴 표현을 찾아보시오.

나는 여호와로라(내가 누군지 알아? 왕초야! 이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말)

3.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에 비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개나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는 알지 못하고 노역이 더 중해지는 것만 마음이 상하니깐

4. 조상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복이 더 많다면?

이름을 알려주셨고

5. 모세는 또 반항을 합니다. 지도자가 이래서야. 추가로 또 반항을 하지요? 어쩌면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는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버티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어찌.....(30):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혀짤배기였다고 함.

혀짤배기: 혀가 짧아서 큰 소리 (혀엿소리)를 똑똑히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

6.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들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12, 30).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큰 착각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세의 착각은 무엇인가?

자기가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뿐이다. 그냥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강한 손으로 치고(3:19-20) 장자를 다 죽인 후에(4:23)야 내어 보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7. 말끝마다 핑계를 대거나 못하겠다고니 때려치우라고 할만도 한데 하나님도 인내심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Yes, I will.' 이러면 안 되나? 군소리 안 하고 실천한 적이 있고 한 번 있다. 그 때는 왜 그랬을까?

말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 (바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 9절)

모세는 몇 번이나 못하겠다고 했을까?

8.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지 인간이 찾아가서 만난 하나님은 아니다. 출애굽만 해도 이스라엘이 원했던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오직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원했을 뿐이다.

출애굽기 7 장

1.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부터 14장까지 읽으면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다는 표현이 몇 번?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다는 표현이 몇 번인가를 찾아보고 답은 14장 끝에 쓰세요.
2.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아론은 대언자로 삼고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해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도를 알아보자.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우리가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
3. 모세가 망명을 할 때는 40세였고 지도자로 나설 때는 80세였다. 40세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학문을 배웠다면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 필요한 무엇을 배웠을까? 다음 힌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를 짐작해 보자.
1) 온갖 이적과 확신을 주면서 시키는 데도 거절하다니: 겹손, 2) 앞으로 이스라엘은 40년을 헤매게 된다: 광야에서 사는 법 (40년을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려면 광야에서 사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4.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려면 애굽의 술객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적을 행하여야 하는데 왜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 낼 수 있는 이적들을 행하게 했을까? (처음부터 바로 장자를 쳤더라면 출애굽이 훨씬 쉬웠을 텐데)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기 위함 (처음부터 바로가 바로 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것)
5. (피와 개구리 이적에 공통)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지나간 일은 잘 맞춘답니다. 고생을 했거나 특히 좋지 않았던 일을 잘 알아낸답니다. 앞으로의 운세는 확률이 반반일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잘 맞춘다고 믿었다가는 신세를 망치게 되지요. 제대로 된 점쟁이라면, 아니 점이라는 것이 쓸모 없으려면 앞으로 될 일을 잘 맞추어야 한다. 애굽의 술객들이 한 일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찾아보시오.
제대로 된 술객들이라면 피로 변한 하수 이적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피를 도로 하수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인데
6. 전국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다수결로)
7. 강물을 피로 변하도록 한 이유 : 애굽인에게 있어서 나일 강은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었고 나아가서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신격화)되었던 나일강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애굽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개구리도 애굽인의 (숭배)대상이었다. (개구리 형상의 여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징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상숭배, 풍요의 근원이 라고 믿었던 데서부터, 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됨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8 장

1.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란 표현이 계속 나온다.

2. 피 이적이나 개구리 이적을 보고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1) 하나님이 그를 강박케 하심, 2) 술객들도 할 수 있는 솜씨였으니까.

3.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 개구리도 애굽인에게는 풍부와 다산의 상징(Heqet: 개구리 머리를 한 출생의 여신)이었지만 전국에 개구리가 들끓게 되자 어떤 점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다수결)

4. 개구리를 언제 없어지게 해 드릴까요라고 물었을 때 바로는 왜 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했을까?

혹시 우연이 아닐까 오늘 밤에라도 개구리들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5. 그렇게 약은 수를 생각하다가 그것 때문에 당한 피해는?

파리 떼를 없애 달라고 할 때 모세가 내일 없애겠다고 한 것

6. 애굽의 술객들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더라면 바로가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말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19)

7. 파리도 파리나름이지 만만히 볼 게 아니다. 조그마한 파리는 그렇다 쳐도 만약 대형 똥파리가 와글거리면? 소의 피를 빠는 쇠파리는 벌떼보다 무섭다. 애굽의 파리는 짐승과 사람을 공격하는 dog-fly란다.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애굽에는 파리가 들끓게 하신 이유는?

1) 고센에는 내 백성, 애굽에는 네 백성 2) 세상 중에 여호와인 걸 알리겠다.

8. 바로의 이유 있는 반항과 이유 없는 반항(고집)은 무엇인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반항하다가 버릇이 되거나 오기가 나면 이유 없이 반항하게 됩니다.

1) 술객들이 이적을 행함, 2)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함

9. 바로의 첫 번심에 따라 내린 재앙은 무엇이며 다른 재앙이 주어질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1) 이, 2) 사전 예고 없음(=6, 9 재앙 ?)

10.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조치는?

1)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함, 2) 고센 땅에는 재앙이 중지됨

11. 고센 땅에는 왜 처음부터 재앙에서 빼주지 않았을까?

이스라엘도 조금 맛은 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

12. 예고 없는 재앙과 예고된 재앙을 비교하면 예고된 재앙이 지닌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통의 가중과 회개의 기회,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줌

13. 바로는 정말 질기고 완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혼이 나고 행복을 선언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바로의 말은?

1) 이 땅에서 (8:25), 2)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8:28)

출애굽기 9 장

1. 바로가 듣고 보니 기가 찬 말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16
2. 바로나 그의 백성에게 또 고센 땅의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을 아는 것
3. 애굽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백성은 피할 수 있었던 재앙은?
우박 9:20
4. 재앙의 강도가 차츰 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축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된 재앙은?
심한 악질
5. 재앙의 강도가 차츰 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말하는 재앙은?
우박 9:20
6.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지만 바로는 그래도 그것이 우연히 생긴 일로 믿고 싶었다. 바로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바로가 보내어 본즉 9:7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라(9:29)
재앙 중에 여호와와 금홍(9:32)

출애굽기 10 장

1.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람.

2. 10장에서 나타난 모세와 신하들의 변화를 찾아보시오.

1)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말이 많아졌다. 2) 바로의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되었다.

3. 모세가 바로에게 쫓겨난 것이 몇 번인가?

메뚜기(알없이), 흑암(새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 하리이다.)

4. 재앙이 내리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마음먹은 최초의 재앙은 무엇인가?

메뚜기 재앙 전

5. 모세는 미움과, 서러움을 받으면서 바로에게 다녔으나 이제는 모시러 온 신하들에게 이끌려 바로에게 나아갔다. 어느 재앙의 예고 때인가?

메뚜기 (메뚜기가 재앙이 될 수 있나? 율1, 암7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가 등장하고 펠 벅 여사의 토지에도 메뚜기와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이 지나가면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폐허가 된다고 한다. 도시락 반찬으로는 사용되는 우리나라 메뚜기 만세.)

6. 모세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가 애당초 모세의 말을 귀 담아 들지도 않았다는 증거이다. 바로의 어느 말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갈 자는 누구 누구뇨

7. 모세가 쫓겨나왔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싸움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뜻인가?

바로가 웃고, 모세는 화를 내고 물러나오고 그러다가 드디어 역전이 됐다.

8. 애굽에 내린 재앙은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내린 재앙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재앙이기도 하였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나일강, 개구리 형상의 여신, 각종 짐승 모양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9번째의 흑암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어느 신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는가? 왕의 명칭인 바로(역사책의 파라오)의 의미를 알면 되는데.

태양신 Ra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

9. 바로의 절대 권력은 나라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까지의 재앙으로 나라가 거의 거덜이 난 상태가 되었다. 왕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신하들이 큰소리치기 시작했다. 몇 장 몇 절부터일까?

10:7

10. 그래도 바로는 사나이다.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대들었을 때 웬만하면 하고 싶은 말은?

야, 이놈들아 나를 충동질하게 해서 반항하도록 부추긴 놈들이 너희들 아니냐.

출애굽기 11 장

1. 하나님에게 난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수없이 발뺌을 하던 그 모세가 정말 크게 자랐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앞에서 화를 냄(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2.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이 있다. 진짜? 11장의 표현을 이용하여 비슷한 속담이나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애굽의 왕자보다 고센의 개 (11:7)

3. 장자가 죽는 애굽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의 무슨 잘못에 대한 심판일까? *Hint*)하나님은 기억력이 아주 좋은 분이시다.

1:16 남자여든 죽이고

4.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슨 약속의 성취일까?

7:1(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5. 바로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지만 쫓겨나온다기보다는 승리자로 나오게 된다. 승리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은, 금 패물을 구하여 많이 가지고 나옴

6. 바로의 완고함이나 완악함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라는 생각이 그 근원일 것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우리 주변의 바로를 찾아봅시다.

그 바로에게 들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그는 바로가 되고 나는 모세가 된다.

출애굽기 12 장

- 유월절 저녁식사에 대한 내용이 세 군데 나온다. 왜 세 번이나 나오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첫 번째 :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말씀
 두 번째 :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전한 말씀
 세 번째 : 추가로 덧붙인 말씀
- 유월절 저녁식사는 참 이상한 식사이다. 이상한 점을 있는 대로 찾아보시오.
 1)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2) 허리에 띠를 띠고 (많이 먹으려면 풀고 먹어야 하는 데), 3) 발에 신을 신고, 4) 손에 지팡이를 잡고, 5) 급히 먹으라. 6) 애굽 전역에 죽음에 휩싸이는 때에 7) 아침까지 남긴 것은 소화하라 8) 이방 사람은 먹을 수 없으나 할례 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9)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 10) 뼈도 찢지 말라
-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 이상한 식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불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어라고 불평을 할까요?
 1) 왜 이렇게 급히 먹어야 되요? 맛있는 걸 좀 천천히 먹지 않고
 2) 왜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되요? 남겨두었다가 내일도 먹지
 3) 좀 편안하게 앉아서 먹으면 안돼요? 지팡이는 왜?
 4)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요? (무교병)
 5) 보기 싫게 피는 왜 뿌려요? X(두 번째 유월절부터 성소의 제단에서 행함)
-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얘야,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기 전에 애굽에 벌을 내릴 때 우리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단다. 이 피 덕분에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고 애굽에는 장자가 다 죽었단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란다. 애굽 사람들이 워낙 다급해지니까 우리도 급히 떠나야만 했단다.
- 그날 밤에 애굽인 한 사람이 말인데 형편이 어려워 도둑질을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의 어느 집에 숨어 있다가 이 이상한 식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뭘 좀 훑쳐가려는데 이 사람들이 자야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사업은 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밤에 죽었을까 살았을까?
 (답을 쓴 후에만 이 곳을 통과할 수 있음) 죽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은 피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선하고 악함과 관계없다. 비록 도둑질하러 들어갔다 할지라도 피 아래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이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의무만 있지, 나 자신이 못한 놈이라고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허물어 내릴 자격이 없다.
-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아마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오해를 불렀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 6:52-54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나누는 지극히 적은 양의 빵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 유월절 식사에서 양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난 유대인들도 결국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이다.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 (예수님)의 상징 (그림자)이다.
-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뜻한다는 다른 예를 더 찾아보자. 다음 구절은 유월절 식사의 어느 구절과 관련이 있나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펴서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찢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찢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 19:31-34).'
- 뼈를 찢지 말고
- 6번, 7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찾아보지 말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7).'
- 여러분들이 옛날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을 10일에 준비하여 14일에 잡으면 4일 동안 양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양을 보면서 여러분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를 두개 들면
 1) 아이고 불쌍한 놈. 네 목숨은 사흘밖에 안 남았어. (X)

2) 야 고놈 맛있겠다. (X)

3) (너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야. 고마워. 미안해)

10.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애굽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지할 것이 못되는지 즉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을 찾아보시오.

장자를 치는 벌은 곧 애굽의 모든 신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하심 12

11.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 세 가지

1) 옷에 싼 발효되지 못한 반죽, 2) 은, 금 패물, 3) 요셉의 해골

12.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연구하고 발표한 사람이 더러 있었다. 흰 옷을 즐겨 입었다던가, 인사가 같았던가(shalom=안녕) 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지에 팔죽을 쑤어서 귀신이나 액운을 쫓는 것과 유월절에 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근본적인 차이를 말할 수 있는가?

동지의 팔죽을 귀신이 싫어하는 이유는 색깔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은 결코 색깔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독자의 죽음을 보고 용서하는 것이다.

13.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지금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

우리의 예배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예배에는 죽어야 할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감격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14. 드디어 해방이다. 이 지긋지긋한 애굽을 이제 떠난다. 어디에 모여 출발했는가? 또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라암셋: 국고성을 짓느라고 죽도록 고생하던 곳

15. 출발할 때의 인원이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얼마 정도였을까?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아졌는가?

200만 ~ 300만, 80명 정도

逾越 : 넘어가다 (pass over)

無酵餅 :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출애굽기 13 장

1. 선생님이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나는 만 이니까. 좀 더 자란 후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 위에 누나가 있고, 어려서 죽은 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목사가 안돼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을 했어요. 성경을 참 잘 읽었죠? 예, 아니 오로 답하되 그 이유도 적어보세요.

예 (1점):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생각은 했으니

아니오 (2점): 첫 새끼나 첫 아들을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대속하는 과정을 통하 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2. 가나안에 들어가서 잊지 말고 대대로 지키라는 내용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타내시오.

1) 유월절 2) 무교절 3) 초태생의 대속

3. 2번의 내용을 신신 당부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행동의 근원에 예수님 의 죽음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4. 출애굽이라는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공헌한 게 있는가? 있다면 고통소리를 낸 것밖에 없다. 아직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대동단결하여 적과 맞서 싸울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어려움에 빠 지면 극복해 나갈려는 의지보다는 편안하게 안주해 버리려는 근성이 그대로 있었다. 스스로 노예 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이 백성을 광야로 내몰아 훈련을 시키고 하나의 민족으로 세우 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홀랑했거나 모세라는 위대 한 지도자의 작품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을 13장에서 찾으시오

13 : 17

5. 좁게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을 두고 먼 길로 우회한 것은 나악한 이스라엘 때문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원래 우회해서 시내산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앞에서 본 어느 말씀이 생각 나는가?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3:12

6. 출애굽이란 사건은 어느 날 문득 생겨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잊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구해준 일도 아니다.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면 확실하다. 본문에 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어디인가? 두 군대를 찾으시오

1) 5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2) 19절: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요셉이 알고 있었 다.)

7.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 중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는 말씀과 맥이 통하는 구절을 찾아보시오

누룩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보이지 말게 하라 13:7

8. 유대인들이 어떻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 중에 유대인들의 철저한 자녀 교육을 그 원인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많다. 유대인들이 철저한 자녀 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를 본문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곳곳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9. 공납금이나 보충수업비 따위를 잊어버리고 제 때 못 내면 손등에다 적어서 잊지 않게 하는 것 을 보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참으로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인격을 침해당한 게 아니냐 싶 어서 물어보았더니 어떤 애들은 자기 스스로 손등에다 썼답니다. 나원 참. 하나님은 더 지독하답 니다. 1) 어디에 쓰라고 하셨나요? 2) 쓰기만 하면 되나요?

1) 손과 미간에 2) 입으로 연습도 많이 하라.

10.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代贖입니다.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하여 대신 양이 죽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갚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 힘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 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낸 것은 누구 의 아이디어일까요?

하나님 (13:13)

속전(贖錢): 잃어버린 사람을 풀어주거나 저당 잡힌 재산을 되찾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말함. 신약에 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본질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Ransom)로 설명하고 있다(막 10:45, 마 20:28) 무교병(無酵餅):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출애굽기 14 장

1. 바로가 다시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된 동기를 바로의 입장에서 설명해 봅시다. (들쳐서 = 뒤, 옆으로 돌다. 아득하여 = 영어 성경에는 *wandering*으로 되어 있음)

1) 바보 같은 자식들이 길을 잘못 들어 갇혔구나. 저 바보 같은 놈들에게 내가 이토록 당하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2) 그 자식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나를 무시하며 나갔다. (답대히 나갔음)

2. 5절에 이상한 말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것을 바로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마 바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신하들이 깨우쳐 준 말일 것이다. 바로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바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말했던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보짓(대군을 이끌고 헤매다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바닷가에 머무른 것)을 하게 하고 바로와 그 군대를 유혹하여 완전히 깨뜨리는 것은 바로의 무슨 잘못 때문인가?

하나님이 여호와인줄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 14:4

4. 큰 일을 앞에 두고 하자 하지 말자로 편이 갈려서 몹시 다투다가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시작했는데 일이 정말로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작하길 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히자, 일이 잘될 때는 좋아라고 하던 사람이 '봐라, 내가 머라카데. 안 된다 안 카더나'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지요. 이 말이 어디에 있나요?

14: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5. 뒤에서는 바로가 병거를 몰고 추격을 해오는데 백성들은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모세는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나, 몰랐나?

알고 있었다. 14:1-4, (14:13-14)

6.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소리를 쳐놓고 했으나 내심으로는 모세도 고민이 됐던 모양이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백성들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양)

7.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그 때까지 바로의 군대가 갈라진 바다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겨 달리기 어렵게 한 탓이다. (O,X)

구름 기둥과 흑암 때문이다. 바다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병거가 말짱했다.

8. 출애굽은 우리가 사탄의 종 노릇한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즉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아래 있고 비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시라 (고전 10:1-4)

9. 험난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거나 게으른 것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둘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비판하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좋은 본보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입니까?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0. 다음 문장을 성경을 보지 말고 틀린 부분을 고치시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21 : 바다위로 손을 내어 민대

11.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어떻게 해서 생긴 믿음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하고

2)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15, 16장을 읽으면서 비판해 보세요. 2) 번 답은 16장 끝에 쓰세요.

12. 7장 1번의 질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다는 표현이 몇 번?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다는 표현이 몇 번인가?

1)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다 : 7:13, 14, 22, 8:15, 19, 32, 9:7, 34, 13:15

2)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다 : 4:21, 7:3, 9:12, 10:1, 20, 27, 11:10, 14:4, 8, 17

13.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닐까?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대답을 해 봅시다. ()을 채우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롬 1:24

출애굽기 15 장

1. 물에 잘 가라앉는 것은?

돌 (5) 납 (10)

2. '여호와와 () 이시다'에서 () 에 들어갈 수 있는 1) 명사를 있는 대로 찾으시오. 2) 형용사도 있는 대로 찾으시오.

1)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용사, 그의 이름 (여호와), 신중의 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2) 높다. 영화롭다. 거룩함에 영광스럽다. 위엄이 있다.

3.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는지 있는 대로 찾으시오. 그 중에서 당시 상황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하나만 골라보자.

1)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용사, 그의 이름 (여호와), 신중의 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2) 높다. 영화롭다. 거룩함에 영광스럽다. 위엄이 있다.

3) 용사(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물음에 우리 자신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야곱의 말처럼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4. 이 찬양을 부르게 된 동기를 말해주는 부분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5. 이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누구이며,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1) 이스라엘 :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춘다.

2) 바르와 그 군대 :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물에 잠겼다.

3) 가나안 족속들 :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6. 문단을 둘로 나누어 보세요.

1-12 와 13-18

7. 바르의 군대를 납으로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첫째, 납은 무겁기 때문이다. 무거우면 물에 잘 가라앉는다. 둘째는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추격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고요하다. 9절의 그 말 많은 자들이 전부 잠잠해졌다.

8. 이 찬양은 이때까지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는 많이 다르다. 흔히 하는 말로 대단히 신앙적이다. 주어를 살펴보면, 내, 여호와, 대적, 열방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주어가 (여호와)임을 알 수 있다. 시편 23편은 '(내가) 영원히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 찬양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 하시도다'라고 끝을 맺는다.

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라고 찬양하던 그들이 바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던가? 그들의 못난 조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놀라운 찬양을 부른 그들이 사흘 만에 다시 모세에게 원망한 것

10. 우리의 삶에는 흥해를 건너는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쓴 물도 있다. 나에게 있는 흥해의 감격은 무엇이며 내게 있는 마라는 무엇인가?

1) _____

2) _____

흥해의 감격도 없고 마라만 있는가? (출애굽기) 없으면 흥해도 마라도 없다.

11. 의사에게는 의료보험증과 돈을 갖고 가면 된다. 여호와에게 치료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법도와 율례) 25-26

12.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적 속에서 살았다. 흥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추위와 어둠을 막아준 불기둥과 한낮의 더위를 가리워 준 구름기둥, 매일 아침마다 공급되는 만나를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현현일 텐데 매일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기적도 적응이 되면 잊어버리나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의 연속일 텐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면 잠시 감격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격하면서 사는 방법이 매일 꾸준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출애굽기 16 장

1.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것이 (1)월 (10)일이고 유월절이 (14)일 저녁이니까 이튿날 떠났다고 보면 애굽을 떠난 날짜가 (1)월 (15)일일 것이다. 신 광야에 2월 15일 도착했으니 애굽에서 양식을 메고 나온지 (한 달)정도 되었다. (12장 참고) 그 동안 먹은 것이 주로 무엇이였을까?

나을 때 메고 나온 것, 데린 가축

2. 먹는 문제로 원망한 백성들을 타할 수만도 없다. 배가 고프니 그저 생각나는 것이라곤 애굽의 고기 가마와 떡찌는 술뿐이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겨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 (식욕과 성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기는 하나 전혀 극복하지 못하면 동물과 다름이 없다)

홍해를 건너 기적과 마라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으니 원망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다.

3.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치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될 말을 두 개나 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꾸를 해보세요.

1) 배불리 먹던 (훔쳐 먹었거나 얻어먹었겠지 노예 주재에 배부르긴)

2) 여호와와 손에 죽었더라면 (장자를 멸할 때 죽었더라면 죽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천 신만고 끝에 살려놓았더니 이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4. 만나를 거두는 방법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은 점이 있는가? 왜 꼭 그래야 할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4): 일용할 양식: 매일 매일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뜻 (평생 먹을 것을 한꺼번에 주시기를 기도하면 어떻게?)

5. 모세가 시내산 불불은 떨기 나무아래에서 하나님께 처음 소명을 받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느 말인가?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7) = 우리가 누구냐? (8)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설명하고 달래도 못하겠다고 뱅뱅 돌던 모세가 왜 이렇게 변했지?

6. 한번 원망하니깐 조금 귀찮하고 먹을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다면야 해볼 만하지 않아요?

아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계획에 들어 있었다. 바보야

7. 하나님은 여전히 답답하시다. 야 이 녀석들아 이제는 좀 알만한데.....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알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은?

1)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6

2)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줄 12

8. 이상한 빛을 발견하고 이게 뭐지? 모르겠다. X라 하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아직도 X-ray입니다. 백인이 호주에서 뛰어 다니는 이상한 동물을 보고 원주민에게 저 놈 이름이 뭐냐? 고 물었더니 Kangaroo (=I don't know)라고 대답했는데 그대로 이름이 되었답니다. X-ray나 Kangaroo같은 방식으로 이름 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만나: 백성들이 아침에 밖에 나갔다가 한 마디씩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나?

9. 우리 집에서는 양식을 5되 주었는데 옆집에는 8되를 주었습니다. 남겨두면 하루 만에 냄새가 나는데 왜 양식의 양이 다르죠?

식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10. 어물전 꿀뚜기를 찾아보세요

식량을 많이 거두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한 자. 16:20

안식일에 밖으로 나간 자. 16:27

11. 만나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지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을 메우시오. (답을 스스로 생각해서 써넣기 전에는 찾아보지 마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 6:48-51)

12. 양식을 아껴 먹고 남긴 것도 죄냐?

아껴 먹고 남긴 게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고, 남긴 주원인은 매일 양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 14장 11번의 2)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고 했는데(14:31)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15, 16장을 읽으면서 비판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보면서도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는가? 믿지 않으려면 아무리 큰 이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 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눅 16:29-31).’

믿음이 있다 해도 때로는 약해지고 넘어지기도 한다.

출애굽기 17 장

1. 홍해를 걸어서 건너 일, 마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하면서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디 해보세요.

야 너거 참 너무하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한다)

2. 신 광야에서 배고플 때의 원망보다 좀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느 표현이 그것을 말하나요?

1) 다투다 (↔ 원망하다) 2) 풀로 치려 하나이다 (↔ 말로만 했다.)

3.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 민족을 미화하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애굽의 기록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무슨 원수진 게 있다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허물투성이로 기록해 놓았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백성들의 우매함을 강조하는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내용이 자신의 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비록 사람의 손을 빌어 썼다 해도, 사람의 뜻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4. 다음 구절은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답을 생각해서 쓰고 난 후에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비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 10:1-4

5. 호렘산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온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1)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2) 반석을 치지 않고 그냥 물이 나오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1) 하나님 6

2)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6. 원래 지도자는 고독한 법이다. 얼핏 보면 앞에서 호령도 하고 존경도 받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혼자서 고민하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의논할 상대도 없고 백성들은 일단 생기면 불평이고... 1) 지도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2)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하셨을까?

1)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진정한 방법은 없다.

2) 모세를 일찍 부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백성들의 불평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훈련시키신 후에 모세를 부르신 것

7. 모세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쳐드는 버릇이 생긴 모양이다. 사실은 전쟁을 해 본적이 없는 오합지졸에다가 무기도 없는 판이니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손을 쳐들고 있으니 이기고 내려오면 지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을 들고 있어야 했다.

1) 이 모세의 손이 특수한 능력이 있는 손이 아니라 평범한 손이라는 증거는?

피곤을 느꼈다.

2)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장난 비슷한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교훈을 시청각 교재를 통하여 보여준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케 하고)

8.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나간 전투에서 때로는 밀리기도 했지만 결국 첫 승리를 얻었으니깐. 더구나 훈련도 안된 병사에, 무기도 제대로 없는 싸움이었으니 더욱 기뻐할 것이다. 돌아온 그에게 암기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못 외우면 밥을 안 준단다. (수양회 때 성경구절 못 외우면 밥 안주는 습관이 이때부터 생겼다는 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전투에 이기게 되었을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이것을 외워야 했는데 암기해야 할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9. 아론과 훌이 맡은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 보시오.

지도자도 사람이다. 피곤하고 지칠 때 도와주어야 한다.

10. 이스라엘이 치른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이 전쟁은 훗날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전쟁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두고두고 심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왜

이 전쟁이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게 됐을까?

전쟁이라곤 해 본적이 없는 오합지졸, 노예 집단이 싸워 이긴 최초의 전쟁.

11.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이런 찬양을 부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체육 대회? 응원가?

여호와 낫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어야 한다.

아말렉: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딘나에게서 낳은 아들이다(창 36: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훈련시키시려는 판에 처음으로 도전을 해왔다. 같은 혈족이면서도 무자비하고 비겁하게 배후를 기습 공격했다(신 25:18). 여호와께서 이들을 도말하리라고 선언하신 이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민 14:45, 삿 6:33, 삼상 14:48, 15:7, 27:8, 삼하 8:11-12) 끝내 멸망당하고 만다(대상 4:41-43).

출애굽기 18 장

1. 다음 글에서 틀린 곳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고치시오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들을 장막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어려움과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장인 이드로는 훌륭한 사위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셔다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장인은 여호와를 찬양했다.

2.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속으로 한 마디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을까?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시다마는 자네는 머리가 나빠

3.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겸손해야 한다.(1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해도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 협력자,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독불장군은 없다.(2점)

4.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모세가 언제 처와 아이들을 불러보냈을까?

아마 할례 사건 때 : 자신의 일을 처자식들이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았던 것 같다. 고독한 지도자의 길을 걸었을 것

5. 모세는 장인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었던 것 같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잘못된 간증의 결과와 비교해 보자)

장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했으니

6.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모세에게 갔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어디로 혹은 누구에게 가야합니까?

성경으로

7. 장인 이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방법이라도 막무가내로 시행하라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을 찾으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23)

8. 장인 이드로의 충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1) 군대와 같은 행정조직을 만들어라. 2) 대리인을 세우라. (재판 체제를 만들라)

9. 18장은 주로 모세와 장인 사이의 이야기이지만 백성들과 모세의 사이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준다.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느낌을 주는가? 어느 사건을 겪은 이후 이렇게 된 것일까?

백성들이 모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

출애굽기 19 장

1.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는 약속을 주셨던 산 (3:12)

2.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않으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어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까? (3)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던 그 곳으로 갔을 것이다.

3. 4-6 하나님께서 어깨에 힘을 잔뜩 넣은 채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다음 보기 중에서 고르든지 아니면 5번에 주관식으로 답을 쓰시오.

1.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2. 내 말을 잘 들어라

3. 나의 능력을 보았으니 너희 신으로 삼는 게 좋지 않겠느냐

4.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다.

5.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 백성답게 만들겠다) : 이 언약을 모세언약이라고 부른다. 모세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창 12:1-3)의 연장이다. 일종의 거래 형식을 띠고 있는 듯이 보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거래나 계약으로 되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월급날, 와 아빠 돈 많다. 그래 말 잘 들으면 많이 사줄게 하시는 아버지. 안 듣는다고 안 사주나.

4.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1) 내 소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꺼야 하는데 내가 물건인가? 사랑이 될 여문 상태. → 너는 내꺼야 하는데 아무 저항감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

2) 제사장 나라: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어떤 거물 인사가 선물을 주겠다고 하자 거절하면서 그냥 옆에서 심부름이나 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포항에서 한창 잘 나가고 있다.

3) 거룩한 백성(나라) 거룩이란 구별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백성이란 뜻, 특별 대우를 하겠다는 뜻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왜 독수리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독수리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1. 새 중에 왕이다.(가장 크고 빠르다. 강하다.)

2. 새끼를 강하게 키운다. (떨어뜨렸다가 받아 주고를 반복한다.)

6. 산이 진동하는 나팔소리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이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볼 수 있게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모세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본문에서 그 구절을 찾아보시오.

19:9 내가 뽕뽕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7.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면? 그들을 놀라게 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레, 번개, 뽕뽕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자욱한 불, 큰 진동

8. 돌격할까 하노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볼 수 있을까?

성별되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 나오면 죽일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인 것을 잊지는 않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선생님이니 결코 친구는 아니다. 다만 친구처럼 대할 뿐.

9.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친구가 성경을 인용하여 권면을 했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말라고 하지 않느냐(15)? 말씀대로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시오.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하여 부부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뜻이다. 교제와는 관계없는 말이다.

10. 출애굽기를 크게 양분하면 18장까지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이고, 19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침을 베푸는 기록이라 하겠다. 이런 가르침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평등한 계약인가? 그 이유는?

일방적이다 : 이적과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으니 (공포 분위기에서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을 것)

평등하다 : 내 백성이 될 것이냐고 백성들의 대표에게 물어 보았고 그렇게 대답했으니.

정답 : 어차리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계약을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해 주신 것이다.

申飭 하라 :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

11. 19장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을 찾아보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종교

12. 19장에서만 모세는 시내산을 몇 번이나 올라갔다가 내려왔는가?

세 번 (3. 8. 20)

출애굽기 20 장

1.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서문)을 비교해 보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이 훨씬 더 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녀로서 기본적인 조그마한 것을 요구하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기억할 때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

2. 하나님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름을 찾으시오

질투하는 하나님 = 사랑이 지극한 하나님 (질투심이 강한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추잡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질투는 짜릿하기까지 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로록 애뜻한 사랑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3. 아이들에게 ~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얼핏 보면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항목이 많아서 소극적인 면이 많아 보인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규정을 지키는 데에만 집착하다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예수님께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없었을까?

서론을 중시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4.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어른이 된 이스라엘에게 줄 계명이 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십계명은 오히려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요?

하라 1.5개 하지 말라 8. 5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두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다.

5. Oh, my God. Jesus Christ. 따위는 몇 계명 위배인가?

3번 째

6. 부모를 공경하면 받게 되는 복은?

땅과 장수

7. 어떤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조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1계명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절하는가, 섬기는가. (숭배의 대상으로 다루는가? 아닌가?)

8. 성경에 (연좌제)가 있다는 증거로 20:5을 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부모들의 죄가 지닌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모의 악물 복용이나 알콜 중독, 잘못된 성 생활로 인한 기형아의 탄생이나 그 외의 나쁜 영향력은 보통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에는 하나 밖에 없지만) 6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랑(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일까요? 본문에 힌트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남녀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독점욕

10.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이들이 제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 자살, 약물 중독에 빠져드는 것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계명만 제대로 지킨다면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는다. 어느 계명일까? 아무리 불량학생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11.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성 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어디서 이런 사상을 배웠을까? 그것은 성 문제에 관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들의 그릇된 것만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말을 배우는 아이가 욕을 먼저 배우고 외국어 중에서 먼저 퍼지는 것이 욕이고 외국문화가 들어 올 때도 저질 문화가 먼저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성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하는가?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음으로라도)

이와 같이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롬 1:27

12.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인위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어떤 형식과 치장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요소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을 찾아보시오.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

13.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은 몇 계명인가?

- 1)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 2)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 3)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제 1 계명

14.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거짓말을 했다. 어느 계명 위반일까?

3계명: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5. 교회는 대학 들어간 후에 다녀도 되잖아. 우선은 대학갈 공부를 해야지. 이걸 어느 계명 위반일까?

2계명: 점수가 우상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16.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의외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다. 평소에 자신이 손해 보면서 일을 하다가 교회 일로 꼭 빠져야 한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피만 부리고 희생적으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이 생기면 교회 핑계대고 빠지니 욕을 얻어먹는 수밖에 없다. 물론 자기들은 더 땡땡이를 치면서도 그런다. 그렇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면 어느 계명 위반일까?

3계명: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7. 공부가 재미있어서 밤낮도 없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공부만하는 학생도 가끔 있다. 일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처자식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 요즈음엔 컴퓨터에 빠져서 만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다. 어느 계명 위반일까?

4계명: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하라가 아니고.

18. 남자는 노출이 심하면 여자에게 혐오스럽지만, 여자가 노출이 심하면 남자는 성욕을 느끼는 것이 생리적, 심리적인 차이다. 야한 잡지에 실리는 사진이 남녀가 평등하게 실리지 않는 것도 그런 차이 때문이다. 마 15:19에 음욕(성관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다. 여자가 노출이 심하여 남자의 시선을 당기게 한다(거의 자동으로 당겨옴)면 여자는 7 계명 위반일까 아닐까?

위배이다. 최소한 공범은 된다. 선을 분명하게 긋기가 어려우나 짧은 치마나 가슴의 윤곽이 선명하도록 속옷이 비치는데도 남자들에게는 상당한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 천주교의 10계명은 우리와 좀 다르다. 한 계명을 빼고 어느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 빼버린 계명은 어느 것일까?

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1 장

- 히브리인의 종에 대한 규정을 보노라면 고대 다른 민족의 종과는 다른 개념을 보게 된다. 종이 라기보다는 일종의 노동자라 보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 1)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 2) 인간으로 대우를 받았다.(자기 의사를 존중해 주었다.)
 - 3) 종이래도 고의로 죽이면 형벌을 받게 된다. (20)
 - 4) 합부로 폭행할 수 없다.(26-27)
- 다음 중 종으로 팔렸다가 그냥 나갈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
 - 1) 7년째가 되는 종
 - 2) 데리고 들어온 아내가 있는 7년째가 되는 종의 처자식
 - 3) 상전이 준 아내가 있는 7년째가 되는 종
 - 4) 상전이 준 아내가 있는 7년째가 되는 종의 처자식
 - 5) 주인이 의무(의복, 음식, 동침)를 다하지 아니한 여종
 - 6) 주인이 눈이나 이빨을 상하게 한 경우
 - 4) : 다른 규정은 종을 위한 규정이지만 4) 번은 주인의 소유권을 중요시 한 것이다.
- 여종으로 팔리면 (=단순한 노동을 위함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첩이나 며느리로 간 경우를 말한다.) 왜 나오지 못하였을까?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주인이 보호해야 할 의무 때문이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종도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다)
- 여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찾아보시오.
 - 1) 타국인에게 팔 수 없다.
 - 2)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로 대접할 것.
 - 3) 딸리 장가를 들어도 의복과 음식과 동침 (=폭넓은 부부의 의무)하는 것을 끊지 말 것
- 비록 종으로 팔렸다 해도 그가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한 것은?
타국인에게 팔 수 없다. (레25:47-55 :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부득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동족이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고 권고)
-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
사람을 후린 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관리소홀로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의 주인
집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
- 우리 집 소가 옆집 소를 들이받아 죽여 버렸습니다. 재판 결과는 산 소는 옆집에 주고 죽은 소는 우리 차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
- 종에 관한 규정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1)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렸다 해도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하심
2) 영원히 종으로 둘 수 없도록 하심
- 빵을 가지고 오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다가 빵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빵 값을 물어주고 땅에 떨어진 빵은 내가 처리한다.
-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사정없이 책망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나요?
내 단에서라도(14)
- 수양회에서 취침시간에 통성기도를 마구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기도라도 말려야 한다.
- 종의 몸값이 얼마인가? 느낌이 있으면 적어보시오.
은 30세겔. 예수님은 종의 몸값으로 팔렸다.
- 소위 말하는 탈리오의 법칙이 보인다. 성경이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역사학자들의 선입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성경의 기사와 비슷한 내용이 고대 어느 문서에 나타나면 무조건 그 자료를 역사적 자료로 보고 성경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귀족 계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으나, 성경의 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이었기에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법은 만들 수 없었다. 일반적인 법과는 성격이 다른 법이 많이 있다.

흔히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근본정신은 과도한 보복이나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데 있었다. 법 죄를 막기 위한 법인데 결국은 보복을 위한 장치로만 쓰이다가 예수님의 개정을 보게 된다.

14. 고대에는 노예를 사고파는 것이 당연히 되었기에 노예사냥이나 사람을 후리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에게는 종이 되는 경우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만 종이 될 수 있었나요?

1) 빚으로 팔린 경우 2) 도적질 배상 (22 장 이후)

15. 성경에 무슨 노예제도가 있느냐고 비난하지 말라. 성경에는 (일시적인) 노예는 있어도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영원한) 노예는 없다. 일시적인 노예제도조차 없다면 돈 없는 가난한 죄인은 죽으란 말인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제도들이다. BC. 1500년경에 만들어진 이 법보다 훨씬 더 나중에 만들어진 로마의 법이나 심지어 3,000년 이상이나 지난 후에 만들어진 미국의 법보다 더 인간적이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노예제도라면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16. 귀를 뚫을 것인가? 자유할 것인가? 이 고민은 누가 언제 하는 고민인가?

종으로 6년을 채운 자가 (=여러분은 귀를 뚫었나요?)

출애굽기 22 장

1. 집에 도둑(강도)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나보다 덩치도 작고 불어 싸우면 충분히 이길 것 같아서 싸워서 죽여 버렸습니다. 나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느 항목에 걸릴까요?
해 돋은 후이기 때문에 안 된다.
2. 학급에서 물건을 잃어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한 친구가 여기 있네 하면서 내 놓았습니다. 들리면 내놓고 안 들리면 훔치고 하는 식이죠 이럴 때 물건만 내놓으면 되나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3.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잃어버린 경우 다음과 같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도둑이 훔친 경우 : 도둑을 잡든지, 맹세로 끝
2)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다가 들린 경우 : 2배로 갚을 것
3) 감추지 않았는데 맡긴 사람이 감추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2배로 배상 받는다.
4) 증인이 전혀 없을 경우 (재판 불가의 상태) : 맹세로 끝
5) 자기에게서 봉직한 경우 (= 자기 집에서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 배상
6) 맹수가 물어 죽인 증거가 있을 경우 : 배상하지 않아도 됨
결론 : 무조건 배상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의 (태도) 나 (상황)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4. 절대 팔시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5. 잘생긴 여학생을 꼬셔서 데리고 갔다. 결혼만 하면 죄가 없을까? 있다면 왜?
나이가 안됐다. 빙페(결혼지참금)가 없다.
6.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빼앗아가서 먹어버렸다. 1) 선생님이 오셔서 일렀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2) 모세의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보세요.
1) 빙시같이 뺏기고 그래
2) 3개 사다 줘.(소, 양 보다 작으니) 4,5 개 2점, 2개 1점, 3개 3점
7. 여러 가지 율법 중에 가장 인간적인 (인정미 넘치는) 것을 고른다면? 이런 법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까?
1)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 자상하신 하나님
8. 으리으리한 교회를 지어놓고 가장 좋고 값비싼 옷을 입고 오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티를 내지 말자)
9. 22장 전체를 한 마디로 요약해서 나타내는 말이 있다. 몇 절?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봉적 : 도적맞다. 도적 떼에게 강탈당하다)

聘幣 :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대신 장인에게 드리는 예물이나 노동력

출애굽기 23 장

1.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 구절을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보시오.

실내화를 하나 주었는데 제일 미운 녀석의 것이지만 찾아주었다.

2.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가난한 자

3. 가난한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을 섬길 가능성 때문

4. 미리 가난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것도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이 황무하고 들짐승이 번성할까 염려되어

5. 3대 절기

무교절: 출애굽을 기념,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둬, 수장절: 수확물을 저장함

6. 졸업식날도 실내화를 신고 오라고 일러두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고 실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우리반 아이들 중에 실내화 신고 온 사람 찾아보니 2/3 정도 되었다.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는데 본문 어느 구절과 관련이 있을까?

"모두가 신을 신고 다니고 학부형들도 신발을 신고 올라 올 것이다. 지금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졸업식 날까지 선생님 말씀을 따라준 학생들은 정말 고맙다. 살다 보면 옳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모두가 그렇게 하니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혼자라도 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있기를 바란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2)

7. 힘세고 키 큰 아이와 힘없고 작은 두 아이가 싸웠는데 사정을 들어 보니 작은 아이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선생님께서 큰 애 보고 "애 네가 참아라. 애는 힘도 없고, 불쌍하지 않니?"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偏僻되이 斗護하지 말지니라. (3)

8. 모세의 율법이 어느 훌륭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른 말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법에는 없고 이 율법에만 있는 독특한 것을 찾아 보시오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4-5)

9. 다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 탓이지만,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특히 어떤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암시를 줍니까?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대하 36:21)

땅을 7년에 한 번씩 묵여두라.(10-11)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합니다. 포도원과 감람원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그런데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난 후에야 땅이 70년간 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하 36:21) 꼭 안식년의 규정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좌우간 하나님께서 쉬라면 쉬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기억합시다.

10.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무엇인가? 고 물었더니 무교절(유월절?)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1주일간 먹고, 맥추절(오순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수장절(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1주간 지내면 된다. 고 답을 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빠졌다. (형식보다 근본정신이 더욱 중요)

11. 국가간에 맺는 조약 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개입되도록 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남한에 선전포고를 하면 미국이 선전포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조약을 맺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런 계약을 맺은 것 같네요.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22

12. 20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23에서 일단 끝이 난다. 4장에 걸친 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이 나

는가?

시작 :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20:3).

끝 :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23:25)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23:22)

13. 2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23 : 19에서 일단 끝이 난다. 그러면 23장의 나머지 부분은 편지글의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요?

PS, 후기, 추신

偏僻 : 한 쪽으로 치우침

斗護 : 두둔하여 보호함

출애굽기 24 장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장로나 제사장도 멀리서 경배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

예수님 때문에

2. 제사는 아무나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선지자가 드릴 제사를 왕이라고 드렸다가 하나님의 혹독한 벌을 받은 사울을 생각해 보라.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던 번제를 이상한 사람들이 드렸다. 누가? 그래도 괜찮았을까?

청년들이(24:5) 아직 제사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었다.

3.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어른들은 도장도 찍고 계약서도 쓰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표시로 무엇을 했는가?

피를 뿌림 (피칠갑)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4. 하나님과 계약이 성립된 후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한 일이란 무엇인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는 일, 화목, 친목, 교제

5.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었다. 말은 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 태도는 바르지 않다. 모세의 어떤 행동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24:14)

6.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다. 무슨 뜻일까? (참고로 창 33:20-23에 보면 모세조차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도록 허락되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닐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적 의미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가를 겨우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광을 본 것? 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 것? 이 아닐까?

출애굽기 25 장

1. 헌금의 기본 원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2. 모세는 어떻게 성막을 지었는가? (=성막의 설계는 누가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3.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성막의 구조나 크기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설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도대체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혹은 무엇을 위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어떤 집에 거하신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죄인을 만날 수 있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부터는 그냥 읽어서는 알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곳이므로 보조 자료를 이용합니다. (전도출판사의 황금의 집) 1) 먼저 주어진 성경을 읽고 (숫자로 표시된 것), 2) 그 다음에 괄호로 표시된 '황금의 집' Page를 찾아서 그림과 설명을 보고 (P---), 3)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10 - 22 (P88-89) :

(법)궤

다음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1) (법)궤의 크기는 보통 개인용 책상보다 작다

예

2) 뚜껑을 열어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오

3) 고리에 펜 채는 운반할 때 매기 위한 것이다.

예

4) 평소에 채를 빼둔다.

아니오

5) 궤 속에 무엇을 넣어두나요?

증거판 (십계명)

속죄소(시은소)

1) 속죄소의 넓이는 궤의 윗넓이와 같다. 그것은 속죄소가 궤의 (뚜껑) 역할도 겸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상징하는 (율법)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그룹

1) 그룹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가?

속죄소

2) 활짝 편 날개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속죄소를 덮는다.

3) 그룹의 모양과 크기는 나와 있지 않다.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모세는 본대로 만들었다. 1구빗 = 약 45cm

23 - 30 (P72) :

상

(2*1*1)

1) 상의 크기는 법궤 보다 조금 작다. (O,X)

2) 궤와 상의 채를 꺾는 위치는?

① 둘다 높다. ② 둘다 낮다. ③ 상은 높고 궤는 낮다. ④ 상은 낮고 궤는 높다.(발위 턱 결)

31 - 40 (P69) :

등대

1) 등대에서 여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불을 켤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일까?

7 군데

2) 무슨 꽃 모양을 닮았나요?

살구꽃 (아론의 지팡이도 살구나무)

3) 등대는 밀판, 줄기, 잔, 꽃받침, 꽃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나요? 구조? 용접?

한 평이를 쳐서

4) 무게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 (34kg)

출애굽기 26 장

1 - 14 (P 63-65)

1.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막은 몇 겹인가?

4겹

2. 수놓아 짠 것은 몇 겹인가?

제일 안쪽 만

성막의 제1막

1) 이동할 때 제1막을 걷어내면 몇 개의 뭉치가 되나요?

2개 (5쪽씩)

2) 제1막의 색깔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흰청자홍)

3)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는 합계 30규빗입니다. 이것을 덮는 1막의 길이는 얼마일까

40규빗

4) 성소의 폭과 높이는 각각 10규빗입니다. 이것을 덮는 1막의 폭은 얼마입니까?

28규빗

5) 길이와 폭이 약간 차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덮였는지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덮어 드리우고 (13)

성막의 제2막

1) 제2막은 성막보다 길이는 1폭 (4규빗)이 더 길고 폭은 2규빗 더 넓다. 그 이유는?

바깥에서 성막을 덮어야 하니까

2) 2막의 재료는 염소털이다. (O,X)

3) 1막과 2막은 운반할 때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할 때는 금고리를 이용해서 연결한다. (O,X)

X (금고리, 은고리)

성막의 제3막

1) 덮개라고 불린 제3막의 재료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성막의 제4막

1) 덮개라고 불린 제4막의 재료는?

해달의 가죽

15 - 30 (P54-55)

성막의 벽

1) 성막의 벽체를 구성하는 세 부분은?

널판, 은받침, 조각목 띠

2) 널판은 전부 몇 장인가?

$20 + 20 + 6 + 2 = 48$

3) 은받침은 전부 몇 개인가?

$48 \times 2 + 4 = 100$ (네 기둥 밑에 네 개)

4) 널판에 붉은 측은 어디에 꿰기 위한 것인가?

은받침

5) 조각목으로 만든 띠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부 몇 개인가

널판들이 움직이지 않고 바로 서 있게 하기 위한 것, 15개

31 - 37 (P58)

성소와 지성소

(P50)

상, 등대

(P18)

기둥, 낫 받침

1) 성막은 가로 4.5m 세로 13.5m인 금으로 된 큰 집인데 2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이 두개의 방으로 나누어주는 벽은 무엇으로 되어있는가?

네 개의 기둥과 장

2) 성막은 가로 4.5m 세로 13.5m인 삼면이 금으로 된 큰 집인데 현관문은 무엇으로 되어있는가?

다섯 개의 기둥과 장

3) 성막의 기둥과 벽의 받침 중에서 낫으로 된 것은 어느 것인가?

성막문의 기둥 받침

3.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점잖게 계시면 아주 멋지게 집을 지어드릴 텐데 미주 알고주알 복잡한 칫수를 말씀하시는가? 꼭 시키신 대로만 만들어야 하는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26:30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4. 수를 놓아 짠 장을 설치하는 곳은 1) 몇 군데이며 혹시 그 장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26,27종합)

네 군데 (성막 덮개, 성소의 휘장, 성막의 휘장, 풀문의 장 그룹을 수놓는다는 말이 없음)

2)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짠 것,

仰 帳 : 천장이나 상여 위에 치는 휘장

고 : 옷고름, 노끈 등을 맬 때, 풀리지 않게 한 가닥을 고리처럼 맨 것

중간 띠 : 널판을 세울 때 견고히 서도록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꿰는 막대

출애굽기 27 장

1 - 8 (p 19, 30)

(번제)단 (놋단)

1) 단의 크기는 한 평보다 크다. (한 평이란 사람이 이리 저리 누워도 될 만한 넓이인데 단의 용도를 생각해 보라.) (예, 아니오)

예 (소를 잡아도 될 만한 크기여야 하니까) (5×5×3)

2) 단과 그 부속품들의 재료는 무엇인가?

조각목, 놋

3) 언약궤 위에는 금으로 테를 둘렀고, 떡상 위에는 손바닥만한 턱이 있었다. 단에는 무엇이 있는가?

뿔

4) 범죄자가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고 버틴 적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눅1) 이 뿔은 어디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단의 네 귀퉁이 위에 4개

5) 단을 운반하기 위하여 채를 펠 고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놋 그물 위 네 모퉁이에 (4)

6) 완성된 단의 안을 들여다보면 어디에 무엇이 보이는가?

중간쯤에 놋 그물 (속은 비어 있다.)

9 - 20 (p10)

성막의 뜰

1) 성막 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집에 비하면 대지를 말하고 포장으로 둘러싼 회막의 전체 크기인 셈입니다.)

장 100규빗, 광 50규빗,

2) 성막 뜰의 포장은 우리집의 담에 해당합니다. 담의 높이는 건물의 높이에 비하면 높습니까?

아주 높다. (건물의 절반 높이이다.)

3) 성소와 관련된 곳에 사용된 금속은 거의 (금)이고, 단과 관련된 곳은 (놋)이다. 성막의 뜰과 관련된 곳에 사용된 금속은 주로 (은, 놋)이다.

4)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장을 칩니다. 기둥과 기둥사이에 쳐진 세마포 장은 직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일까요? 한번쯤 계산을 해보고 답하십시오.

정사각형 (100규빗에 기둥이 20이니 기둥 간격은 5규빗, 고가 5규빗)

5) 우리네 집과 비교해 보면 이 집 (회막)의 대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아주 넓다. (대문이 20규빗, 양 옆이 15규빗씩)

6)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쪽에 대문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대문은 어느 방향에 있나요?

동쪽

20 - 21 (p 50)

등불의 위한 감람유

1) 등불을 켜두는 위치는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어려워서야 원, 도대체 여기는 어디입니까? 큰 방? 작은 방?

큰 방

2) 등불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는?

순결한 감람유 (기름), 끊이지 말아야 한다.

세마포 : 亞麻를 가늘게 해서 만든 흰 천

28절에서:

胸牌 : 가슴에 부착하는 일종의 주머니

에봇 : 제사장의 제일 겉옷, 일종의 앞치마

斑布 : 반물 빛(짙은 검은 빛을 띤 남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무명

肩帶(纏帶) : 어깨 띠 (어깨나 허리에 둘러메는 자루)

출애굽기 28 장 제사장의 복장

우림과 둠뎡 : 문자적인 뜻은 '빛과 완전'이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었다.

1 - 5 (p 80)

제사장의 옷

- 1) 제사장의 옷재료는 성막의 여러 장들과 거의 같다. 다른 점은?
금실이 추가되었다.
- 2) 제사장의 복장에서 웬만하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띠

6 - 14 (p 80)

에봇

- 1) 에봇은 흘러내릴 염려는 없습니다. 허리끈 때문인가요? 아니면 멜빵 때문입니까?
멜빵
- 2) 제사장 중에 허리띠를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띠가 에봇에 붙어 있으니까
- 3) 군복 입은 군인들 중에 간혹 어깨에 녹색견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전투병이 아니면 장군이라도 녹색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어떤 견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새긴 보석

15 - 28 (p 81)

판결, 흥패

- 1) 흥패를 만드는 방법은 (에봇) 짜는 방법과 동일하다. 재료도 같은가?
같다.
- 2) 종이를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보시오 크기와 이중으로 되었는지 살핀다.
- 3) 이 흥패를 노리는 도둑이 많았을 것 같다.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 4) 흥패를 달기 위한 금고리는 전부 몇 개인가?
6개
- 5) 앞치마는 대체로 목에 띠를 둘러 걸어서 입는데 이 흥패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겹옷에 부착한 방식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흥패 입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오. (예를 들면, 어깨에 끈다. 목에 끈다. 허리에 묶는다.)
어깨에 매달린 것 (탈착식) 위쪽은 금사슬로, 아랫쪽은 청색실로 고정
- 6) 새 술은 새 부대에 넣고 귀한 것은 귀한 부대에 넣는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28:2) 그가 마주하는 ()가 거룩하고 영화롭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흥패는 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하게 만들어 졌다. 무슨 귀중품이 있어서일까?
여호와(하나님), 우림과 둠뎡
- 7) 제사장의 복장에서 가장 특이한 점을 한두 개 골라 보시오.
보석이 과도하게 많다. 금방울이 딸랑거린다.
- 8) 전부 단색으로 된 제사장의 옷은?
에봇 받침 겹옷
- 9) 대제사장의 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다. 어디에?
어깨와 가슴
- 10)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었다. 친히,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 외의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우림과 둠뎡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함)
- 11) 에봇 받침 겹옷을 입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오.
채점은 행동으로 (여자용 스커터트 입는 방식, 머리 먼저)
- 12) 제사장의 옷에 석류 장식과 방울이 달렸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음의 경우를 참고로 생각해 봅시다.
 - 1) 예전에 헌병들이 바지단에 구슬을 붙어서 걸으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었다. (권위, 엄숙)
 - 2) 움직일 때 마다 소리가 난다면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 (행동을 신중하고 경교하게)

(3) 대제사장이 때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히브리 전승에는 발목에 밧줄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함)

13) 대제사장의 옷은 대단히 화려하고 장식이 많다. 일반 제사장은 다르다. 일반 제사장은 무엇을 입는가?

속옷(일반적인 겔옷), 띠, 관, 교의

참고 : 흉패에 물린 보석들

홍보석(루비), 황옥(토파즈), 녹주옥(garnet), 석류석(에메랄드), 남보석(사파이어), 홍마노(다이아몬드)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전부 금테 물림)

29 - 30

판결, 흉패 사용법

- 1) 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붙임
- 2)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 안에 넣음

31 - 35

에봇 받침 겔옷 - 전부 청색

두 어깨 사이에 (머리 구멍)을 낸다. 주위에 찢어지지 않도록 (깃)을 짠다. 가장자리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과 (석류)를 교대로 달아서 소리가 나게 할 것

36 - 49

관, 반포 속옷, 띠

- 1) 관에 붙일 정금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다.
- 2)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다는 말은 대제사장 用이란 뜻이다.
- 3) 속옷, 띠, 관, 교의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이다. 즉 제사장 用이다.
- 4) 제일 팔시를 받은 옷은 무엇이며, 왜?

교의 :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서 제외

제사 제도를 읽기 전에

제사는 자체의 효력 때문에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원본이고 각종 제사는 그것의 그림자이다. 예컨대 종이(돈)를 주고 비싼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것은 종이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 때문이다. 지폐란 그림자이고 금이 실체이다. 보관된 금이 없는 지폐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는 시가 있다. 따라서 제사방법이나 목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의 어떤 면을 설명하고 있는가? 를 살피는 것이 제대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제사 방법에 따른 분류 : 화제(번, 소, 화, 속죄, 속건), 요제, 거제, 전제

제사 목적에 따른 분류 :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 곡식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제사

奠際 : 포도주 또는 독주를 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cf) 딤후 4:6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煎餅(=부귀미) : 가루를 반죽하여 넓고 둥글게 번철에 지진 떡

출애굽기 29 장 제사장 위임식

1.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예물도 까다롭기 그지없다. (마 대충 받으시지 않고...)
 - 1) 소 - 젊은 수소
 - 2) 양 - 흠없는 수양 2
 - 3) 빵 - 누룩없는 것, 고운 가루로
 - 4) 과자 - 누룩은 없고, 기름은 섞인, 고운 가루로
 - 5) 전병 - 누룩은 없고, 기름은 바른, 고운 가루로
2. 위의 제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본래의 성품이 깨끗이 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제물은?
고운 가루
3.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 준비하는 일을 동사 3개로 요약해 봅시다.
씻기고, 입히고(=떠우고, 더하고, 달고, 씹우고), 바르고
4. 아론과 아들들이 입는 옷을 잘 봅시다. 빠진 것이 있네요. 제사장의 정식 복장은 아니지만 꼭 입어야지요? 무엇입니까?
고의

♠10 - 28을 읽으면서 다음 도표의 빈 곳을 채워보시오.

제물의 종류	수송아지	수양 1	수양 2	무교병, 과자, 전병
제사의 이름	속죄제(10~14)	번제(15~18)	화목제(19~28)	
안수 유무	안수	안수	안수	하나씩 쥐고, 요제
피의 처리	송아지를 잡고, 피를 (단 뿔)에 바르고 피를 전부 (단 밑)에 쏟는다	(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옷)에 뿌린다.	
내장과 고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른다	고기는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머리와 함께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사른다.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무교병, 기름 바른 과자, 전병과 함께 사른다. 가슴은 (요제)로 제사장의 몫. 우편 넓적다리는 (거제물)로 제사장의 몫	

5. 곡식으로 만든 음식과 함께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
6. 깨끗이 씻어서 전부를 드리는 제사는?
번제
7. 옷과 몸에 피가 묻은 제사는?
화목제
8. 살코기가 전혀 쓸모가 없는 제사는?
속죄제
9. 자세히 살펴보면 고기 중 일부가 설명이 있음직한데 없는 것이 있다. 31-34 절이나 레위기 8에 보면 그것은 성막 뜰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락된 것이다. 어느 제사일까?
화목제
10.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1) 안수, 2) 피를 흘린다, 3) 일부 혹은 전체를 태운다.
11.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단 (36), 회막(42-44)
12.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 내에서는 태울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3:12) 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제사의 어느 부분인가?
속죄제의 '그 수소의..... 은 진 밖에서 불사른다'

13.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사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기 위한
14. 회막과 단은 기록하여졌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무엇 때문인가?
(1) 제사 때문에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5.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는데 고기를 불사를 때 나는 냄새는 실제로 향기로운가? 아니면 하나님의 코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가?
아니다. 이런 희생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이다.
16.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가장 힘 있고 쓸모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참고 삿1:6) 오른 귓부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귀에 구멍을 뚫는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귀에 구멍을 뚫는 행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오른 귓부리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라는 뜻
17.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받기 위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며칠간 드렸는가?
7일간
18.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제물을 위한 경비도 적지 않을 것이고, 얼마나 힘이 들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이야기다. 아이고, 선생님. 십일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아파워서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놀러 다닐 수가 있나? 천날만날 교회에 매여 어떻게 살아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받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만난다(원 뜻은 약혼하다). 말씀을 듣는다. : 연애 중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나누는 만남임을 암시한다. 어떠한 즐거움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능가하지 못한다. 뜨거운 연애를 한번 해 보시길.
19. 왕이라도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가?
모세
20. 번제의 특징은 전체를 사르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즉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30 장

1 - 10 (p 73)

분향할 단

1) 크기는?

가로 : 일 규빗, 세로 : 일 규빗, 높이 : 이 규빗.

2) 모양은 (정사각형)인데 (뿔)이 있고, 운반을 위한 고리가 (네)개인데 전부 (금)으로 싸여 있다.

3) 위치는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인데 여기가 다른 말로 어디인가?

성소

4) 분향할 단이니까 용도는 (향)을 피우는 것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피우되, 정해진 것 외에 다른 (향)은 절대로 피워서 안 된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번제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년에 한 차례 씩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기만 하라.

11 - 16

속전

1)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 공짜로 된 것이지, 실제로 공짜는 아니다. 사실은 엄청난 값을 대신 지불한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막10:45, 마20:28).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지불한 값을 대속물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값없이 되어질 일이 아니다. 돈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겠는가? 상징적인 의미로 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렀다.

2) 부자에게는 돈을 더 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좀 적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IQ가 높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좀 생각을 해보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고로 소득세나 재산세 같으면 부자가 더 많이 내도록 하셨을 것이 틀림없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생명의 값은 같다.

3) 위의 질문을 참고 하면 이렇게 내는 돈은 액수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푼돈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인구수를 조사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고 아주 드물게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돈의 값어치를 짐작해보자. 노동자의 며칠 품삷일까?

이틀 :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삷

반 세겔 = 10 게라 (5.7g) 한 돈이 몇 그램?

17 - 21 (p39, 46)

물두멍

1) 다른 기구에 비해서 있어야 할 설명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크기와 모양이 없다.

2) 도둑이 보고 탐을 안냈을 것이다. 두 가지 정도로 짐작해 보시오

눅으로 된 것, 훔쳐가기에 너무 컸을 것이다

3) 위치는 회막과 단 사이이다. 다른 말로, 쉽게 여기는 어디인가?

(지성소, 성소, 마당 중) 마당, 뜰

4) 물 담는 물두멍을 제단 가까이에 둔 것은 혹시라도 번제를 드릴 때 불이 나면 소방수로 쓰기 위한 목적도 있다. (O,X)

수족을 씻어 죽음을 면하는 도구 (정결케 하기 위한)

22 - 33

관유

1)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사용이 된 향품들은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물품들이므로 나중에 화장품회사나 약품회사에 일하게 되면 연구해 보기 바란다. 이름만 적어보자

유질 몰약, 향기로운 육계, 향기로운 창포, 계피, 감람기름

2) 이렇게 만든 향기름은 거룩하여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어떤 용도로만 쓰였는가?

각종 기구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3) 아마 요즘의 향수보다 더 값지고 탐나는 향기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 몸에 붓지 말라. 절대로 만들지 말라.

34 - 38 (p 75)

성소의 향

1) 향 만드는 재료 중에 잘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오

없다(1점)

소금(2점) : 성결하게 하는 의미로 (소합향, 나감향, 기자향, 유향)

2) 향을 두는 장소 : 일부를 곱게 찧어서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는데 이곳은 어디일까?
다른 말로 나타내 보시오.

향단이 놓인 위치(증거궤 맞은 편)와 같다. 즉 향단 위에

3) 다른 모든 기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관유나 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무엇이 어떠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예배,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출애굽기 31 장

1. 퀴즈 문제에 성막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참 어렵겠다. 그래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일꾼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재료로 성막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시다.
2. 위의 문제는 안 내려다가 재미로 내본 것이다. 성막을 만든 기술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퀴즈에 많이 나온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성막을 만든 기술자는 브살렐인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
금, 은, 놋, 보석,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1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자 (2점) :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3. 공평하신 하나님도 맞지만, 편애하시는 하나님도 맞는 말이다. 다음 구절과 내용이 비슷한 표현을 31장에서 찾아보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13:12 =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4. 브살렐과 오홀리압 둘이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든 것은 아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31:6)
5.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자기가 쉬었다고? 난 쉴 여가가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쓰고 난 후에 다음 글을 읽으시오.)
밋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게 있다면 안식일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죽음을 각오했다. 전쟁 중에 전쟁을 중지할 정도였으니,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안식일 때문이다란 말이 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끈이 되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엄격한 명령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도 주일을 지키기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 "내일도 학교 나와." "내일은 주일이라 나올 수 없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믿는 표를 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도가 보이는 말씀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31:17)

출애굽기 32 장

1.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많이 보았고,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 떨며 경배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를 감행했을까?

- 1)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은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3) 모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함 이상 1절
- 4)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다.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다. 5-6

5) 원래 익숙한 생활 방식이다. 가시적인 그 무엇을 섬기려는 경향 때문

2. 이상의 원인들을 종합해서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답을 적은 후에 읽으세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는 이스라엘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는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인가? 부모님인가? 선생님인가? 목사님인가? 선배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라. 내가 바로 그 이상한 이스라엘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3.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와 있다. 어떻게 섬기길래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는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송아지 즉 소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힘'과 '생산'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는 것은 문란한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4. 여름 방학 숙제를 안 해 와서 몸으로 때우려는 애가 있었어요. 나는 악착같이 숙제를 하도록 하고 개는 몸으로 때우려고 하고, 12월 달까지 버티다가 내가 이겼거든요. 여름 방학 숙제를 12월 까지 끌다가 결국 다 시켰죠. 우리 너무 질겼어요. 이 녀석이 어느 날 숙제를 안 해 와서 혼이 나고 이튿날은 해 왔는데 필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닥달을 했더니曰, "자다가 깨보니 써져 있던데요." 이 녀석이 어른이 되어서 생각하면 두고두고 창피할 겁니다. 이와 흡사한 말을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을 섬길 아론이 했는데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쪽팔리는 말 한 마디는 무엇인가?

그들이 내게 가져 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4

5. 31-32장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는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바보 같은 하나님 달래고 멀리시는 하나님

애굽인에게는 강하신 하나님, 모세에게는 약하신 하나님,

6.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게 틀림없다. 7-10에서 그 증거가 될 만한 표현을 셋 찾으시오

- 1)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 2) 나대로 하게 하라
- 3)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7.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적절한 한 비유로 설명해 보세요.

가출해버린 동생에 대하여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고 노발대발 하는 아버지에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맞아 죽기다. 아버지 꼴도 말이 아니고 저질 말이라고... 아버지의 구중을 들어가면서도 동생을 찾아와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와 말이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교제)가 있다.

8.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 1)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 2) 애굽인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 3) 스스로 하신 약속을 깨뜨리시겠습니까?

9.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돌 판을 깨버렸는데도 아무런 벌이 없다?

34장에 (돌 판을 스스로 꺾아 만들어야 했다.)

두 돌 판을 비교 :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하나는 모세가 꺾아 하나님이 쓰신 것

10.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돌 판을 깨버려도 괜찮은가? 화가 몹시 나서 이성을 잃은 탓일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소용없는 물건이 돼버렸기에 깨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소용없는 물건이 돼버렸을까?

(19:3-8을 참고)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나

11.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단순히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거의 미친 짓 (광란)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은?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소리로 들은 점

여호수아와 모세의 대화 :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17-18

12. 아론이 죄 지은 탓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동생 모세를 보고 내 주여, ...라고 불렀다. '주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표현인데 이것을 보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가?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4:16

13. 만약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이 숭배했다는 소식을 애굽인이 들었다면 무어라고 했을까? 아마 모세가 대노한 것이 이 원인일 것이다.

자기 신을 섬긴다고 우리 신들을 박살내더니 결국 우리 신을 섬겼다. 야호 우리 신 만세

14. 모세의 명을 받은 레위 자손이 형제든 친구든 마구 죽였다. 마구 죽였을까? 선별했을까? 선별했다면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죽였을까?

모세가 내려와 책망을 했는데도 방자하게 군 사람들과 우상 숭배의 주모자들

15. 모세의 기적 II : 아니 언제부터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게 되었는가? 부름을 받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 (위대한 지도자)를 보인다.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출 16장 참고)

마지못해 나섰던 지도자의 고통스런 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면서

16. 범죄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징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떠들 일이 못된다. 불쌍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뿐이다. 무엇이랴 하면서?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4

출애굽기 33 장

1.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린 것 같지 않은 (좀 빠진 것 같은) 증거를 찾아보시오.
 - 1)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1
 - 2)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3
2.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과 가시적인 그 무엇이 있어야 있는 줄 아는 백성 사이의 타협점으로 제시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나타내셨는가?

회막(임시로 만든)의 구름기둥
3. 모세는 하나님께 아마 조수나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 것 같다. 형 아론도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모세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들어 주셨다. (1점) 여호수아를 주셨다.(1점)

하나님께서 친히 동역자가 되어 모세와 함께 가면서 편케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2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출 33:14)
4.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x) 보았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5. 하나님은 단장품을 참 싫어하시나 봐요. 예배드리러 올 때 이런 것들을 달고 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군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죠? 왜 단장품을 제해야 했을까요? (참고로 이 단장품들(주로 금, 은)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만든 사람들이 무엇을 본 따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과거를 청산하고 벰엘로 올라 갈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창 35장)
 - 1)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가 (슬픈) 때이니까
 - 2) 단장품이란 것이 대체로 (우상)의 형상을 띠고 있었으니까.
6. 모세의 요구 사항이 대단히 많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내게 주를 알리소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친히 함께 가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든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 아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까지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약해지셨나요?

금 송아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것이다. (말이 노릇을 제대로 잘한 셈이다.)

출애굽기 34 장

1. 하나님은 6-7에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가? 두 단어로 요약해 보시오.
 1)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보유)하시는 하나님
 2) 그 비율은 (1,000) : (3.5) (0.35%)
 그래서 다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2.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라고 어느 가수가 노래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작아질까?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며 용서를 구함 8-9
3.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1) 가나안 족속들과 아무 언약도 맺지 말라. 2) 가나안 족속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4.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는 이유는?
 음란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높아서
5.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음란하게
6. 18-20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가끔 헌금 봉투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갚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데 헌금을 얼마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1) 실제로는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2) 만약 푼돈밖에 안 되는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1)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2) 대속할 수 있다.
7. (문장 고치기) 뜻하는 바를 잘 살피서 고쳐보세요. 너는 옛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쉼이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며... = 너는 옛새 동안 공부하고 제7일에는 쉼이니 방학 때에나 (시험칠) 때에도 쉬며...
8.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는 깨끗이 손을 털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찾아보시오. (하나님을 핑계로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제외)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 하리라 24
9. (Nonsense)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음식을 하나만 고르시오
 호떡, 찌빵, 만두, 우동, 핫도그 (누룩이 들어있으므로)
10.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버려두고 두 번이나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만 가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출애굽기 35-36 장

1. 백성들이 바친 물건 중에서 무엇일까요?

애굽에서는 구하기 쉬웠지만 사막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신발을 만들어 신기 위한 값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치고 나면 앞으로 이 사막을 맨발로 다니란 말씀입니까? 바친 보답으로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 29:5

해탈의 가죽, (물돼지 가죽)

2. 헌금의 기본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가져왔으니까(36)

3. 35 장에는 성막 건축을 위한 물건들과 일할 일꾼을 모으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이 없는 뜻깊은 내용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무슨 뜻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 하나님의 일을, 집을 세우는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

(언약의 핵심이 안식일) = 일 자체보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

4. (Nonsense) 성막의 수 놓아 만든 덮개는 모직, 견직, 화학 섬유, 흙방, 무명?

베실 + 염소털실 = 흙방?

5. 다음 중 성막의 재료로 쓰이지 않은 것은?

금, 은, 동, 놋쇠, 염소 털, 양털, 양 가죽, 소 가죽, (동, 양털, 소 가죽)

6. 성막을 만드는 데에 엄청나게 많은 금이 들어갑니다. 웬 금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출애굽 때 애굽인들에게 받은 것

7. 성막의 기구 중에 운반용 채가 있는 기구는 몇 가지입니까? (35:10-19)

4가지 : 증거궤, 상, 놋그물, 향단

8. 이동용으로 만들어진 성막이나 울타리를 광야 사막에 세우려면 콘크리트 기초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짐작할 수 있는 낱말 세 개를 찾으시오.

받침과 말뚝과 줄 (17-18)

9. 에봇을 만드는 데에는 보석이 다양하고 많이 필요했다. 특별히 귀중한 보석류는 누가 바쳤는가?

모든 족장

10. 성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보시오.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

(나머지 답은 1점, 위의 두 문장은 2점으로 처리)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여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36:8-19 (P 63-65)

11. 성막의 지붕은 몇 겹이었나요?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4겹

1)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양장 성막),

2) 염소 털로 (덮는 막),

3) 붉은 물줄인 수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

4) 해탈의 가죽으로 (윗덮개)

지금부터는 성막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한번 나왔던 내용이므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막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찬찬히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점을 설명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11-1.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 53:2)라고 하였으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심지어 형제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

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밖에서 보이는 윗덮개와 내부에서만 보이는 양장 성막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시오.

멀리서 보면 회색빛이 나는 우중충한 모습일 뿐(윗덮개)이지만 내부에 깊숙히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공교하게 수놓은 아름다운 양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11-2. 네 개의 성막 중에 어느 것에 대한 비유일까요? (편의상 제일 안쪽을 1막, 바깥쪽을 4막이라 합시다.)

- 1) 광야의 비, 바람, 폭풍, 모래로부터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했는데 모든 고난을 뿌리치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 지금도 우리를 환난과 시험에서 구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윗덮개 제4막)
- 2)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막의 덮개 제3막)
- 3) 방습효과도 있으며 흰색이다.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순결성을 상징한다. (덮는 막 제2막)

12. 성막을 위한 물품 중에 수를 놓기 위한 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입니다 (P57-60). 이 네 가지 색깔이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 색깔은 예수님의 네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 1) (자색) :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 2) (홍색) : 예수님은 고난 받는 종, 대속의 피를 흘릴 자
 - 3) (청색) : 예수님은 하나님 :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 4) (흰색) : 예수님은 사람 (인자) : 죄없는 사람
- 신약에 똑같은 내용이 네 번이나 나오는 것 같지요? 네 가지 복음이 필요했던 이유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 1) 유대인 : 종교적인 사람들 : 마 -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 2) 로마인 : 정복자이며 권력 있는 사람들 : 막 -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종이다.
 - 3) 희랍인 (그리스인) : 예술적인 사람들 (예술, 건축, 문학) : 눅 -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 4) 그리스도인 :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 요 -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13. 36:20-39:43의 기록은 25:10-28:43의 내용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왜 같은 내용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그 이유를 알았으면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읽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앞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내용이고, 뒤의 것은 명령을 받은 대로 만든 내용이기 때문이다.

14. 성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고지식하다. 백성들이 귀중품을 많이 가져온다고 그걸 귀찮아해? 그냥 받아두면 다 쓸 데가 있을 텐데..... 그렇죠?

Yes (-1점), No (1점), Smile(0점)

15. 36:20-34 (P53-55) 널판과 받침과 띠를 만들었는데 재료는 무엇입니까?

조각목, 은, 금

15-1 성막의 기초는 은으로 만들어졌다. 은받침의 합계는 100개인데 개당 무게를 34kg으로 잡으면 3.4T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은이 어디서 나왔을까? $3400kg \div 600,000 = 0.005667kg$ 즉 일인당 5.667g 이면 된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보았듯이 생명의 값으로 내라고 한 은이다. 생명의 값치고는 너무 싸다. 그래서 생명의 값이라고 하지 않고 (속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싼 (속전)으로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진짜 값을 지불하고 백성들이 낸 은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진다. 성막의 기초는 (속전)으로 낸 은이고 이 은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16. 35-38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한 지성소는 항상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겐 따로 빛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죄 지은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 아닐까요? 언제 이 지성소에 빛이 들어와서 밝아지나요?

제사장이 들어오는 때(임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을? (영원히) 마27:51

출애굽기 37 장

1. 1-9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법궤의 (뚜껑)일 뿐이다. 그러나 법궤와 속죄소와 그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속죄소)이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라도 열어 두셨다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

2. 궤와 속죄소와 그룹은 몇 개로 분리할 수 있나요?

2개

3. 10-16 금으로 된 상 위는 항상 12개의 빵(진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빵을 얹어두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상, 어울리지 않는 상이 아닙니까? 이 상에는 어울리지 않게도 빵 (이스라엘 12 지파)을 항상 얹어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이 빵입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턱이 있는 이 상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막 찌낸 쯔빵이라는 책도 있으니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 17-24 등대를 만들 때 녹여서 부어 만드는 것이 쉽고 정상일 텐데 굳이 한 평이를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었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무수히 고난을 당하신 점에서 이 등대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도 두 가지 사실을 각오해야겠습니다.

1) 두들겨 맞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즐거움으로 받아야)

2) 빛을 발해야 합니다.

5. 매일 피워 올리는 향은 성도의 온전한 헌신과 끊임없는 (기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관유는 각종 기구와 제사장에게 발라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성령)의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예표한다.

6. 36장의 내용을 집을 세운 것으로 비유한다면 37장은 무엇을 한 셈이 됩니까?

집안에 들여놓을 가구를 만든 셈이다.

7. 금테를 두르고 있는 것은?

궤

8. 금을 쳐서 만든 것

속죄소와 그룹, 등대

9. 금을 입혀서 만든 것

궤, 상, 채

10. 금을 부어서 만든 것

고리

출애굽기 38 장

1. 1-7 제단은 조각목을 (놋)으로 짜서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을 때는 곳인데 섯불에 놋이 달 귀지게 되면 그 속에든 나무는 타버리지 않을까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해보았던 모양입니다. 놋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나무는 불에 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영원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능히 견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2. 무엇입니까?

회막의 기구 중에 유일하게(그룹은 제외) 치수가 나타나지 않은 물건입니다.

재료는 회막의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두멍

3. 9-20 기둥과 포장으로 된 성막의 울타리를 세웁니다. 이 뜰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편에 출입구가 있는데 문의 넓이와 담의 넓이를 비교해 보시오.

대단히 넓다. (누구라도 오라)

4. 24-31 다음을 참고로 해서 사용된 금과 은의 무게를 계산해 봅시다. 1달란트는 약 3,000세겔이고 성소의 세겔은 약 11.4g이다. 1) 금의 무게: 2)은의 무게:

사용된 금의 무게는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약 1,000 kg

2) 사용된 은의 무게

100달란트와 1775세겔로 약 3,440 kg, 1달란트는 약 34kg

5. 성소의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단

출애굽기 39 장

1. 금실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금을 얇게 쳐서 오린다.

2.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읽는 재미가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반복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 대제사장의 옷을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답다. 왜 이렇게 아름답고, 보석을 주렁주렁 달아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사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가 하는 사역을 뜻한다.

4. 에봇의 어깨 부분 즉 견대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붙어있다. 가슴 부분 즉 흉패에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붙어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상징하고 있을까? (3번의 구체적 설명이다.)

믿는 우리를 가슴과 어깨에 품고 다니며 돌보신다.

5. 형사와 도둑을 묶어주는 고리는 은팔찌라는 수갑이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꿇으려야 꿇을 수 없는 (롬8) 끈이 있다고 바울은 외쳤다. 이 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흉패)로 하여금 (에봇)을 떠나지 않게 했다는 말씀이다. 은팔찌는 괴롭고 두려워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금사슬)과 (청색) 띠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가?

6.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두 장을 연결하여 만든 옷은 무엇이며? 통으로 짜서 목이 들어갈 구멍을 내서 만든 옷은?

에봇과 에봇 받침 끈(겉옷)

7. 에봇은 대단히 화려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한다면 에봇 받침 끈 옷은 단순한 (청색)으로 에봇의 아름다움을 받쳐 주는 옷이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즉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

8. 33-41 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 성막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가 될 된 탓입니다. 다시 찬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의미를 담은 성막이므로 완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 장

1. 40:1-16 모든 준비를 다한 후에 드디어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을 완성하는 절차 중에서 각종 기구를 다 만들고, 그 기구를 제자리에 들여놓고도 결코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절차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그것뿐이라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공부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작업 즉 거룩하게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나 회막을 세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구상에 따른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의 의견이 들어간 일이 아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하였더라

3.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묘사하면서 시작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거할 집인 성막의 완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하심 (출현))을 묘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총정리(성막)

1.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멀리서 성막을 바라보면 칙칙한 색의 지붕을 가진 밋밋한 집과 흰 포장으로 된 울타리가 보입니다.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했고, 믿는다는 우리들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혹시 우리 눈에도) 그저 (칙칙)하고 (밋밋)하게 보일 것입니다.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그 깊은 내면에 눈이 부신 휘황찬란함이 있음을 겉모습만 보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계 21:22

2. 반드시 문으로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 10:1)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10: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3. 그 문을 크고 넓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뜻입니다. 들어오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3)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4. 1)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듯 제단이 보이고 많은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광경에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정녕 죽으리라 (창 2:17)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 6:23)

2) 그 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 양에게 손을 얹으시오. 당신의 모든 죄를 이 양이 대신하여 죽을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롬 3:25)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 9:26)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 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 1:29)

5.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벗어났지만 손발이 더러운데....., 물두멍이 보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 있어서 매일 손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독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요 13:10)

6. 모든 죄를 용서 받은 기쁨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평안을 줍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제사장들은 온종일 바쁘게 일을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우째 이렇게 많노?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제사장도 있을 텐데 아무리 보아도 앓아 쉼 (의자)가 없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히 10:11)

빨리 저렇게 힘든 일을 그치고 쉴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 10:10.....10:18)

다 이루었다. (요 19:30)

7. 성소로 다가갑니다. 금으로 된 기둥과 놋으로 된 받침이 있군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는 성소의 내부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태양 빛이 없어도 너무나 찬란합니다. 아름답게 수 놓은 천정과 금으로 된 벽이 등대의 빛을 받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계 21:23)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재료로 만든 집에 바닥이 모래땅이었답니다.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롬 7:21)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정함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있으며 세상과 육신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뜻이다.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두멍이) 있잖아.

8. 성소 내부에는 (상에 놓인 진설병)이 보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상위에 있는 진설병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한다하면서 상위의 빵이 아닌 다른 빵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 옆에 (등대가 보입니다. 밝게 비추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빛이 되는 삶, 즉 말씀에 따라 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상과 등대를 지나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사르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제단과 물두멍을 거치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성경 공부와 그에 따른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9. 드디어 마지막 방 즉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꺼운 휘장이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들어가면 제사장조차도 즉사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 10:19-2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 27:50-52)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 6:20)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좇아 겁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

총정리(전체)

1.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는 (80)년이 넘었고, 모세가 모든 일을 포기하고 양이나 친지도 40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시각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일이다. 결코 우연도 아니고 갑작스런 일도 아니다. 출애굽의 더 큰 의도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서 자신의 백성을 삼는 것: 하나의 민족이란 구심점이 될 만한 그 무엇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가장 큰 역사가 출애굽이 된다.

2. 다음 말씀 중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밑줄을 그어 보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고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고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 4:9

3. 하나님과 모세가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은 몇 장인가? 혹은 어느 사건 때문인가?

분노한 아버지와 말썽꾸러기 아들을 둔 형의 이야기

31장, 하나님의 분노와 자신의 희생을 각오한 모세의 중보 기도

4.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다음 글을 읽고 소감을 말해보시오.

출애굽기는 오경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심한 노동으로 고통을 당한 애굽 노예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로 해방을 쟁취했다는 이야기가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특정한 인물을 다루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즉, 히브리라는 집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와 협상하여 히브리인들을 일으키고 제사장을 임명하는 자로서 병참전문가, 최고 군사지휘관, 재판관, 예언자 등의 역할을 담당해 낸 초인적인 영웅이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여정은 모세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건처럼 인식되었다.

물론 모세가 한 역할은 크다. 그러나 모세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다 보면 출애굽 사건의 주체인 히브리 노예들의 삶의 모습과 역사가 모세의 그늘에 가려지기 쉽다. 실질적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의 탄압 아래서 이집트의 문명을 이룬 자들이었다. 바로의 폭정에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연대하여 이에 항거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과 역사가 없이는 출애굽 사건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출애굽기는 정치적인(= 인간의 일) 책이 아니다. 2) 주인공이 모세가 아닐뿐더러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다. 3)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5. 율법에 대한 기록과 성막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가?

성막

6.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율법을 기록한 돌 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 율법이 적힌 돌 판은 깨어지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오른다.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과 계명의 돌 판을 준다. 이것을 들고 내려온 후에 모세가 (혹은 이스라엘이) 심혈을 기울여 한 일은 무엇인가?

성막을 세우는 일

7. 2번과 3번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있는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

8. 하나님은 동작이 참으로 느리다. 1)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최소한 몇 년 만에 듣게 되셨는가?

80년

2) 동작이 느리다고 하면 불경죄에 걸릴 테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9.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것인데 모세는 마치 며칠 떠났다가 돌아올 것처럼 말한다. 언제부터 바로에게 완전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말을 했을까?

결코 하지 않았다.

10. 바로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팔호 속은 추정)

0. 여호와가 누구관대..... 죄를 주지 말고 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도록 하라

0. 뱀 : (그런다고, 어렵었다.)

1. 피 : (그런다고, 태도 없다.)

2. 개구리 :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보내겠다.

3. 이 : (그래도 못 보내)

4. 파리 :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무 멀리 가는 가지 마라

5. 악질 : (어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 좋다 이거야

6. 독종

7. 우박 : 여호와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8. 메뚜기 : (재앙 전) 너거는 나쁜 놈이야 임마. 남자만 가라 (재앙 후)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라

9. 흑암 :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10. 장자의 죽음 :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떠나라. 양도 소도 몰아가라.

11. 모세가 세워지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3)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4)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5)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6:12)

6)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6:30)

7)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구하여 이 개구리를 없앨까요 8:8

8)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8:26

9) 바로는 다시 거짚을 행치 마소서 8:29

10) 내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9:29

11)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지경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10:3-6

12)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10:26

13)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옛날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위에 적은 번호로 답하시오)

Q1. 어디서부터 아론보다 모세가 더 많이 말하기 시작하는가? 8

Q2. 입이 둔하다더니 어디서부터 청산유수가 되었나요?

Q3. 어디서부터 모세는 신이 났을까요?

Q4. 왕 앞에서 겁을 상실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Q5. 제일 쪼다 같은 말은? (다수결로)

12. 위임식이 끝나고도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지냈다. 하루에 (두번)씩 (어린 양) 하나, (고운 밀가루) 1/10에바, (짙은 기름) 1/4 힌, 奠際로 (포도주) 1/4 힌을 제물로 드렸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벰전 2:9은 말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같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 어떻게 드려야 하나? 나름대로 답을 쓰고 난 후에 롬 12:1을 보시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매일 기도하는 삶,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의 제사다. (=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일 것이다.)